

푸틴 만난 폼페이오 “북한문제 목표 공유”

2시간 가까이 면담... “협력할 있는 방안 찾을 수 있길 희망” 러 대통령 보좌관 “北 압박에 굴복 안할 것...안전보장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4일(현지시간) 러시아 휴양도시 소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난 뒤 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AFP통신이 보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푸틴 대통령의 여류 별장에서 2시간 가까이 진행된 만남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나는 우리(미국과 러시

아)가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우리가 협력(work together)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그(푸틴 대통령)는 미국이 리드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나는 우리가 협력할 지점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면담은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정상회담을 연 지 3주 가까이 만에 이뤄졌다. 폼페이오 장관은 푸틴 대통령과 만나기 앞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3시간여 회담에서 이란 핵 합의 무산 위기와 베네수엘라 정국 혼란, 시리아 내전, 한반도 비핵화 협상 등에 대해 논의했다. 폼페이오 장관과 푸틴 대통령이 만난 뒤 러시아의 유리 우사코프 대통령 외교담당 보좌관은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에 대해 모

든 나라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으며, 성공적인 합의를 위해 북한에 국제사회의 안전보장이 제공돼야 한다고 밝혔다. 타스 통신이 전했다. 우사코프 보좌관은 “우리는 미국 국무장관이 러시아가 동북아의 안정적인 안보 체제 조성을 위해 모든 당사국과 협력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했다”며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국제사회가 북한에 안전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뉴욕 '자유여신상' 새 박물관 개관 오는 16일(현지시간) 문을 여는 미국 뉴욕 관광명소 '자유여신상' 부속 박물관의 유리창에 13일 자유여신상이 반사돼 있다. 여신상의 받침대 내 협소한 공간에 있었던 이 박물관은 여신상이 위치한 리버티섬 한쪽으로 옮겨져 2천415㎡ 규모로 재개관한다. /연합뉴스

“무역전쟁·북미협상 교착에 시진핑 방한 망설여”

홍콩 SCMP 보도

미국의 무역전쟁과 북핵 협상 교착 등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 방문을 망설이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5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시 주석이 다음 달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 정부는 시 주석이 각국 자국을 방문할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이달 초 중국을 방문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중국 지도부에 시 주석의 방한을 직접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무역전쟁 격화와 북미 관계 악화 등은 시 주석의 방한을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SCMP는 분석했다. SCMP는 “중국은 북한을 방문하지 않은 채 한국을 향한 경우 북한을 무시한다는 인상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무역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미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은 이 또한 원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중국 관료들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으로 냉각됐던 양국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 주석의 방한을 내심 바라고 있

지만,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추진이 쉽지 않다는 것이 SCMP의 분석이다.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관계자는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항상 최우선 순위로 놓고 있으며, 서울이나 평양을 방문하는 것도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라고 말했다. SCMP는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만을 강조하는 일본과 달리 남북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중국에 한 발짝 다가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무역전쟁과 북핵 협상을 둘러싼 어려움이 중국이 동아시아 이웃에 다가가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돛 달고 태양빛으로 가는 ‘솔라세일’ ‘라이트세일 2호’ 우주 첫 시험비행

내달 플로리다서 로켓 발사

우주에서 돛을 펴고 태양 빛을 추진력으로 이용하는 ‘솔라세일’ 시험비행이 마침내 우주에서 시작된다. 미국의 비영리단체 ‘행성협회’에 따르면 솔라세일 시험비행을 위한 ‘라이트세일(LightSail) 2호’가 다음달 22일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에서 스페이스X 팰컨 헤비 로켓에 실려 발사된다.

라이트세일 2호는 식빵 한 덩어리 크기에 무게는 5kg에 불과한 초소형 위성인 ‘큐브셋(CubeSat)’으로 지구궤도에서 권투 링 크기의 돛을 펴고 태양광자를 이용해 궤도를 높이는 시험비행을 한다. 솔라세일은 태양 빛의 입자 성질인 ‘광자(光子-photon)’의 운동량을 대형 돛으로 모아 우주선의 추진력을 얻는 것으로, 처음의 가속력은 미약하나 지속해서 빛을 받으면 고속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태양 빛은 우주 어디서든 무제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솔라세일은 미래 성간 우주여행의 한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솔라세일은 지금은 고인이 된 미국

의 유명 천문학자 칼 세이건 등이 주창했으며, 이들이 설립한 행성협회를 통해 시민모금 형태로 추진돼 왔다. 세이건은 1976년에 자니 키슨의 투나잇 쇼에 출연해 솔라세일 우주선 모델을 공개하기도 했다. 라이트세일 2호는 24개의 위성을 3개 궤도에 올려놓는 미국 국방부의 우주테스트프로그램(STP)-2에 포함돼 발사된다. 라이트세일 2호는 우선 며칠간은 기구 상태 등을 점검한 뒤 4개의 양면 태양광 패널을 펴고, 이어 4개의 금속 돛 활대를 이용해 삼각형으로 된 4개의 돛을 펼치게 된다. 돛은 녹음테이프나 포장 등에 이용되는 필름인 ‘마일러(Mylar)’로 만들어졌으며, 전체 크기는 32㎡에 달한다. 라이트세일 2호는 지구궤도를 도는 동안 절반만 돛이 태양을 향해 해 아주 약한 추진력만으로 매일 수백미터씩 궤도 높이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렇게 한달정도 고도를 높여가면 측정이 가능할 정도가 될 것을 예상되고 있다. 시험비행이 성공하면 태양 빛을 이용해 고도를 높인 첫 우주선이 된다. /연합뉴스

日여당 자민당 ‘실언 방지 매뉴얼’ 배포

잇단 망언 파문...참의원 선거 악영향 우려 입조심 당부

일본 여당 자민당이 지당 소속 정치인들의 잇따른 망언으로 인한 여론 악화를 우려해 국회의원 등 당원들에게 실언 방지를 위한 매뉴얼을 배포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자민당 (선거)유세국은 최근 A4용지 1장 분량으로 실언을 막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을 담은 매뉴얼 ‘실언과 오해를 막기 위해서는’을 만들어 국회의원, 지방조직, 참의원 선거 후보 예정자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이 매뉴얼은 “발언이 끊겨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야 한다”며 “심포를 사용하며 길게 얘기하지 말고 마침표를 활용해 짧은 문장으로 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사적인 회합에서도 누군가가 스마트폰으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공개할 수 있다”면서 “약자, 피해자에 대해 말할 때는 한층 더 배려하고 표현에 대해서도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기사의 제목에 사용될 ‘강한 표



망언으로 사퇴한 사쿠라다 일본 올림픽 담당상. /연합뉴스

현’에 주의해야 한다며 ▲ 역사 인식과 정치 신조에 관한 개인적 견해 ▲ 젠더, 성적소수자에 대한 개인적 견해 ▲ 사고와 재해에 대해 배려가 결여된 발언 ▲ 병과 노인 등에 대한 발언 ▲ 접대하는 말투의 표현 등 5개 유형별로 예를 들며 실언을 막을 방법을 제안했다. 이 중 역사 인식 관련 부분에서는 “사죄도 못하고 장기화하는 경향이 있다”며 특히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제일오피스텔, 급매

-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23-2번지 (구, 수기동 현대극장 바로 옆)
- 20층중 3층, 38평
- 하천방향, 전체 올수리, 사무실 전용
- 관리비 저렴, 주차편리
- 보1천만원에 월50만원에 임대가능
- 시세/감정가 - 1억400만원
- 급매 - 7500만원(일시불)

신창동, 근린상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
- 4층중 2층 201호 전체, 준주거지역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좋은
- 보증금1억에 월400만원 임대가능
- 감정/시세-11억
- 매매 - 7억 5천만원(조정가)

문의. 010-6834-7400